

STANDARDS PRISM ① 표준의窓

글_ 정병기 영남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생명과 유목의 역사, 그리고 표준

표준은 순환의 이득을 최대화하는 생명의 코스모스(COSMOS)



19세기 인류의 지성계에는 두 번의 커다란 지각 변동이 있었다. 1859년 찰스 다윈의 《종의 기원》과 1899년 지그문트 프로이트의 《꿈의 해석》이 그것이다. 첫 번째 지각변동에서 인간의 역사가 생명의 역사에 속한다는 사실이 드러났으며, 두 번째 지각변동에서 무의식도 인간의 정상적인 정신활동에 속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종의 기원》이 다른 생명체들과 인간의 관계 속에서 신체적 진화의 진리를 발견했다면, 《꿈의 해석》은 의식과 무의식이라는 인간의 내면적 관계에서 정신적 진화의 가능성을 열었다.

한편, 이 두 지각변동이 공통적으로 밝혀낸 것은 인간의 본질이 유목遊牧(nomadism)과 순환에 있다는 것이다. 인간을 호모 노마드(homo nomade)로 규정한 자크 아탈리(Jacque Attali)에 따르면, 다윈은 인간이 진화의 산물이고 인생은 여행이며 인류는 떠돌아다니는 원숭이 단계에서 출발했다고 논증했고, 프로이트는 인간 내면의 노마디즘이라는 여행으로 우리들을 안내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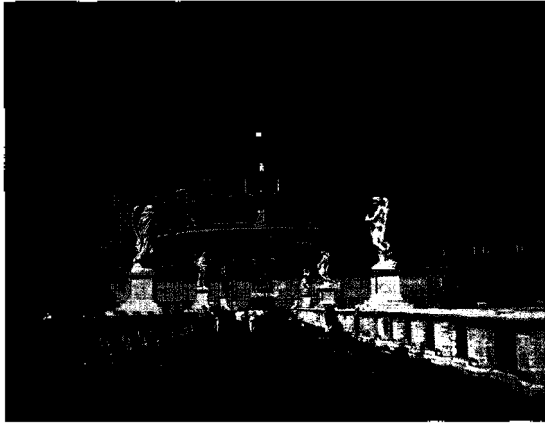
그렇다면 인간은 원칙도 방향도 목표도 없이 그저 떠돌아다니기만 하는 것일까? 그 대답은 아탈리가 인간의 역사를 유랑이 아니라 유목이라고 정의한 데서 찾을 수 있다. 단순히 떠돌아다니는 유랑과 달리 유목은 무엇인가 길러낸다는 목표가 있으며 그 목표를 위해 원칙과 방향이 성해지는 것을 말한다. 길러내는 것은 결국 인간의 진화를 상징한다. 이 진화가 비록 무의식적으로 진행된다 할지라도 이 무의식 역시 정상적 정신생활의 한 형태임을 말한다. 그리고 인간의 진화라는 목표를 위한 원칙과 방향이 상징하는 것이 표준이다. 곧 인간의 역사는 진화를 위해 표준을 제정하고 발전시켜온 생명의 역사라 할 수 있다.

정착의 역사와 유목의 역사, 그리고 표준

다윈의 《종의 기원》을 통해 역사는 더 이상 인류의 역사만이 아니라 모든 생명체의 역사이자 유목의 역사가 되었다. 이로써 인류는 자연 위에 군림하는 별개의 존재가 아니라 자연 속에 함께 하는 생명의 하나라는 인식이 짚혔다. 이제 인간 중심의 우주관이 아니라 생명체들 간 순환관계를 중시하는 우주관이 더욱 중요하게 되었다. 프로이트의 《꿈의 해석》은 인간의 정신세계를 파헤쳐 무의식의 존재를 알렸다. 인간이 인식하지 못하는 무의식은 꿈에서만 아니라 정상적 정신생활에서도 나타난다는 것이 드러났다. 꿈에서와 같이 특별한 계기를 통해 이 무의식은 전前の의식을 거쳐 의식의 영역으로 옮겨온다. 인간의 정신은 무의식과 전의식, 의식의 영역으로 순환한다는 것이다. 이로써 신체적 진화뿐만 아니라 정신적 진화에서도 유목과 순환의 모습이 드러나게 되었으며, 무의식적으로 진행되던 인간의 진화라는 목표가 문명을 통해 의식의 영역에 진입함으로써 의식적으로 진행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이 두 지각변동을 통해 우리 눈앞에 더욱 명확하게 드러난 것은 이는 세계보다 모르는 세계가 더 넓고, 확실한 것보다 불확실한 것이 더 많다는 사실이었다. 때문에 인간은 끊임없는 유목의 역사를 거치면서 정착하고 정주하려는 욕심을 가져왔으며, 그 정착은 또 다른 유목의 도전에 의해 해체되고 진화되었다. 서양 최초의 정착민 제국이라 불리는 로마제국이 고트족과 반달족 등 주변 유목민들의 공격으로 쇠망했으며, 역시 동양 최초의 정착민 제국이었던 신나라도 북방 기마민족으로 알려진 유목민들의 끝없는 위협으로 멸망했다.

이 최초의 정착민 제국들은 표준을 발전시킨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로마는 도로와 마차라는 산업 표준을 발전시켰으며 공화정이라는 정치표준을 개발했다. 진은 도량형이라는 산업표준을 도입하고 군주정이라는 정치표준을 정립했다. 그러나 최초의 표준이라고 알려진 이 표준들은 유목의 역사로 볼 때



▲ 도로와 마차라는 로마의 산업표준은 도량형이라는 진의 산업표준처럼 소통과 유통을 더욱 원활하게 했다.

최초의 표준은 아니었다. 말이라는 이동수단 표준이 발전한 것이 로마의 산업표준이며 민주정을 혼합정치로 전환한 것이 로마의 공화정 표준이었다. 마찬가지로 불량의 거대한 증가에 따라 발전해온 측정수단들을 공식적으로 정립한 것이 진의 도량형 표준이라면 춘추전국시대의 반개한 정치형태를 통일국가에 맞춘 것이 진의 군주정 표준이었다. 이 표준들은 각기 다른 의미에서 정착의 역사로 후퇴해 쇠퇴의 원인이 되는가 하면 유통의 역사를 발전시키는 진화의 원인이 되기도 했다.

도로와 마차라는 로마의 산업표준과 도량형이라는 진의 산업표준은 소통과 유통을 더욱 원활하게 했다. 이러한 의미에서 이 표준들은 유목의 역사를 살리는 원칙과 방향에 충실함으로써 인간의 진화라는 목표에 부합했다. 반면 공화정은 아테네 민주정이라는 유목적 정치표준의 일부만 수용해 황제와 귀족이라는 정주(定住)적 요소와 결합함으로써 진화적 발전을 저해했으며, 군주정은 동양 유목민들의 초기 선거제도의 맥을 끊고 분서갱유와 같은 오점을 남기면서 춘추전국시대의 다양성을 말살했다. 이후 서양의 봉건시대와 동양의 왕정시대는 근대 민주정의 부활이 있기까지 사실상 정치사상의 암흑기로 귀결됐다고 할 수 있다.

로마 공화정과 진의 군주성이 공통적으로 범한 오류는 표준 본래의 흐름을 벗어나 노모스(nomos) 즉 법의 영역에 간섭버린 것이다. 로마의 공화정은 아테네 아고라의 전통을 법으로 대체했고 진의 군주정은 백가쟁명을 법가사상으로 획일화했다. 엄밀히 말해 이 두 정치 표준은 이미 표준이 아니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제 세 번째 지성사의 지각변동이 있다면, 그것은 유목의 역사를 이어받아 불확실성의 시대에 새로운 원칙과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인간의 진화라는 목표에 부합하는 표준을 정립하는 것이다.

노마드가 노모스에 선행하듯이 표준은 법에 선행한다

불확실성의 시대는 다양성의 시대다. 이러한 시대상을 두고 혹자는 '신도 잘못을 지지르는 세상'이라고까지 한다. 불확실성의 시대에 고정불변인 것은 없으며, 세상은 생성되는 것과 소멸되는 것들의 끝없는 간동으로 전개된다. 그러나 인간의 역사가 단순한 유행이 아닌 것처럼 불확실성의 시대에도 질서와 무질서가 공존한다. 이를 두고 우리는 질서(cosmos)와 무질서(chaos)의 합성어를 만들어 카오스모스(chaosmos)라고 부른다. 이것은 항상 유통적인 변화를 보이는 복수성이나 다양성을 지니는 사물들 속에서 질서 속의 무질서 혹은 무질서 속의 질서를 발견할 수 있다는 생각과 연결된다. 잘못된 질서는 타파하고 무질서 속에서 세롭고 올바른 질서를 창출해간다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올바른 표준의 정립이 카오스모스를 바로 세우는 중요한 원칙과 방향으로 작용한다.

유목의 세상은 노모스(nomos)를 반드시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다. 사실 노모스란 유통빈을 뜻하는 노마드(nomadic)의 어원이 된 단어지만, 그 본뜻은 대지의 획득과 분할 및 분배 혹은 경계의 획정과 공간의 측정을 통해 새로운 질서를 부여하는 시원적 행위다. 다시 말해 개개의 법률이나 규칙에 선행

하지만 요즘에 와서는 대개 법을 뜻하는 것으로서, 국내의 치안 유지를 위해 유랑자들을 처벌하며 특정한 질서에 묶어두어 오히려 유목을 제한하고 불가능하게 만드는 조건으로 작용한다. 그러므로 노모스가 노마드에 선행하는 것이 아니라, 노마드가 노모스에 선행한다. 다양성과 변화를 지향하는 현대 사회에서 경직된 법과 같은 노모스는 자유로운 활동과 순환의 흐름을 방해하는 규범이 된 것이다. 노마드가 따르는 것은 노모스가 아니라 코즈모스다. 노모스가 생명의 흐름을 차단하는 인간의 질서라면, 코즈모스는 인간을 포함한 생명의 흐름을 담아내는 우주와 사연의 질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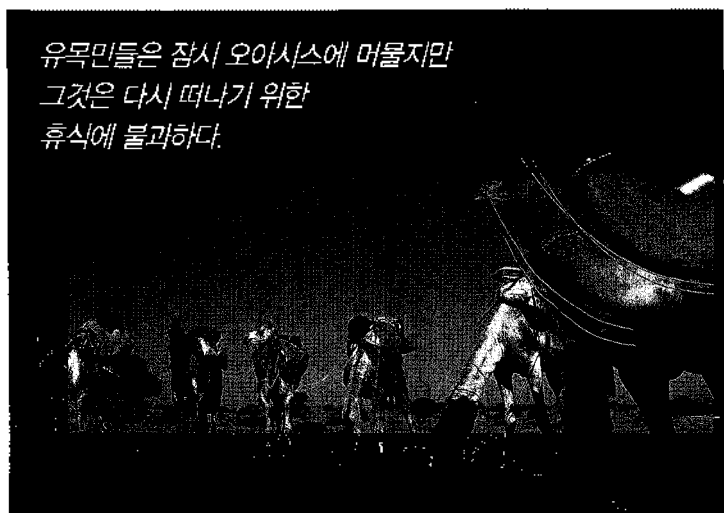
표준은 최소 품질과 안전을 보장함으로써 보다 질 높은 다양성을 촉진하는 코즈모스의 세계에 속한다. 유목이 정주에 선행하듯이 변화와 다양성이 안정과 통일성에 선행하며, 그 세계에서 표준이 작동한다. 물론 법을 필요로 하는 영역도 존재한다. 그러나 인간 생활의 다양한 측면에서 표준이 기본 규범이 되고 그 가운데 특정한 이유에 따라 정치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제정되는 것이 법이다. 따라서 노마드가 노모스에 선행하듯이 표준이 법에 선행한다.

표준은 순환의 이득을 최대화하는 증여처럼 생명의 흐름을 따른다

표준은 순환의 이득을 최대화하는 생명의 흐름과 같다. 역시 현대 사회를 '노마디즘'을 통해 조명하고자 하는 《노마디즘》의 저자 이진경에 따르면, 생명이란 어떤 순환계 안에서 순환의 이득을 획득할 능력이다. 이때 순환의 이득은 각 생명체가 자신에게 없는 것을 다른 생명체로부터 받음으로써 생기는 이득이다. 뒤집어 말하면 각 생명체가 이웃한 다른 생명체에게 그에게 없는 것을 줌으로써 생겨나는 이득이다. 따라서 순환의 이득이란 생명체를 구성하는 요소들이 순환적으로 의존하는 관계를 표시하며, 그 의존의 양상이 서로에게 없는 것을 제공하는 증여의 관계임을 의미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순환은 서로가 가진 가치들을 일부 양보하여 주고받는 교환과는 다르다. 교환은 어떤 경우에도 마이너스를 포함하지만 증여는 자신에게 필요하지 않은 것을 주고 필요한 것을 받는다는 의미에서 순수한 플러스의 과정이다. 예를 들어 식물이 동물에게 산소를 제공하고 동물은 식물에게 거름을 제공할 때 그것은 증여의 관계다. 산소와 거름은 각각 식물과 동물에게 버려야 할 배설물에 불과하지만 이를 받는 동물과 식물에게는 생존에 꼭 필요한 자양분이기 때문이다. 생명의 순환은 이러한 증여를 통한 발전의 과정이며, 이 발전이 무한히 거듭되고 특정한 계기를 만날 때 진화가 생겨난다.

표준이 순환과 같은 유목의 흐름을 차단하는 노모스가 아니라면 이와 같이 생명 본연의 흐름을 따르는 것이며 또 그래야 한다. 유목민들이 잠시 오아시스에 머물지만 그것은 다시 떠나기 위한 휴식에 불과하다. 표준은 통일성을 도모하지만 그것은 다양성과 발전의 흐름을 더욱 촉진하기 위한 과정에 다름 아니다. 《종의 기원》과 《꿈의 해석》이 드러낸 카오스모스의 세상에서 표준이 노모스가 아닌 코즈모스를 형성해야 한다. 그것이 제3의 지각변동이 될 것이다. ☺



유목민들은 잠시 오아시스에 머물지만
그것은 다시 떠나기 위한
휴식에 불과하다.